

춤추는 왕, 루이14세를 통해 바라본 발레 속의 정치권력

박현정* · 김지영**

I. 서론	V. 결론
II. 춤추는 권력: 남성무용수로서의 왕	참고문헌
III. 전문적인 몸: 발레테크닉의 발전	Abstract
IV. 정치 전략으로서 발레의 부흥과 쇠퇴	

I. 서론

무용이 여성을 위한, 여성중심의 예술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어쩌면 최근에 들어서 여성 무용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이 비해 과도하게 높아져 무용계의 남녀 성비가 불균형한 현상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남성 개그맨들이 하얀색 타이즈를 입고 발레리노를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한참동안 인기를 누렸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는 남성무용수들이 입고 나온 다소 민망하고 선정적인 의상과 아슬아슬한 몸 개그 때문일 것이며 이면에는 ‘남성들이 발레를?’이라는 호기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레는 원래 남성 전유물이었다. 발레의 원형은 1489년 이탈리아 밀라노의 갈레아츠오공과 아라공의 이사벨라 공주 결혼식에 상연된 막간 희극의

* 주저자, 한국예술연구소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artedu@smu.ac.kr

스펙터클로, 15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의 소산물이다. 이것이 프랑스로 옮겨가 궁정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며, 강력한 발레의 후원자였던 루이 14세 시기인 1661년 직업적 전문 무용가를 양성하는 왕립 무용학교가 설립되어 발레의 전성기를 맞았다.

초창기 발레에 등장한 무용수들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고도의 테크닉을 갖춘 직업무용수가 아니라 지체 높은 귀족 혹은 왕과 왕비였다.¹⁾ 궁정발레는 당대의 지배계층들에게 독점된 사교이면서 참여예술이었으며,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상류사회는 발레를 통해 집단내의 특권의식을 가시화해 나갔기 때문이다. 궁정발레는 주로 왕정내의 특별한 날, 즉 행사를 위해서 제작되어 공연되었다. 매년 2월의 사육제 때 정기적으로 추어졌으며, 왕실이나 주요 귀족들의 혼례식, 또는 왕세자의 탄생을 기리기 위해서 공연되었다. 그리고 외국 대사나 초청 귀빈을 위한 환영식으로도 이용되었으며 단순히 왕의 권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인 여흥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왕과 귀족들 중심으로 행해진 궁정발레는 뛰어난 기교보다는 조화로운 미와 고상한 기품을 강조하였고 당시의 사교춤에서 강조했던 장식미, 우아함, 고상함 등이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의상 역시 자신의 지위와 부귀를 강조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되었고 당연히 움직임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된 것이다.²⁾ 이와 같이 당시 궁정발레는 총체적 공연물이자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이며 여흥이었다. 궁정발레는 정세에 따라 그리고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왕족과 귀족들의 교류를 도모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을 고양시켜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 발레는 상류사회에서 단순한 오락과 여흥 이외에도 진지한 의미 즉, 왕의 업적을 찬양하고 국가의 위신을 세우는 정치적인 면도 가지고 있었다.

이전까지의 궁정발레에서 간혹 귀족의 딸들이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남성만으로 출연진이 짜여 졌으며, 여성의 역할은 가면을 쓴 소년이 맡기도 하였다. 남성들의 독점 무대였던 루이 14세 시대의 발레는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1) 수잔 오(2002), 『발레와 현대무용』, 김채현(역)(서울: 시공사, 2010), pp.11-13.

2) 앞의 책, p.11.

남성우세의 문화에서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한 여흥적인 직업으로 전략하게 된다. 이 시기의 발레는 관객의 요구도와 흥미를 반영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장소로 바뀌었고 남성무용수는 파트너의 역할 혹은 여성무용수의 보조나 배경으로 역할이 후퇴하게 되었다.

이렇게 남성에 의해, 시대를 지배하려던 남성의 정치적 권력을 위해 시작되었던 발레는 역사와 사회적 변화를 거쳐 그 형태와 목적이 변화되어져 왔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성중심의 무대가 되어 남성 춤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어느새 서양 무용사의 관점에서 남성은 단지 여성의 춤을 보조하는 역할로 존재했지만 사실 지금의 극장무용을 이끈 발레는 그 출발이 매우 남성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는 남성이 오래 동안 여성을 지배해온 역사이다. 이는 발레가 생겨나고 발전되어 온 무용사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이 연구에서 발레의 르네상스시기를 이룩한 루이 14세를 통해 그가 발레역사에 미친 영향력과 발레 속에 투영된 정치적 권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루이 14세에 관련된 무용연구를 살펴보면 박경숙(1996)은 한 시대를 풍미한 연극인 몰리에르를 통해 루이 14세가 궁정발레를 통해 이룩하려던 절대 왕권을 부각하였고, 심정민(2004)은 역사적 고찰을 통해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발레의 본질적 특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상경(2009)은 루이 14세 시대에 나타난 그의 예술관과 정치철학의 관계를 궁정발레의 표현양식을 통해 재조명하였으며, 배수을(2010)은 영화『왕의 춤』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그 시대의 무용사적 정황과 정치적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무용 연구에서 루이 14세는 프랑스 발레의 전성기를 누리게 한 인물로서 그의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각 나라의 궁중 춤을 비교하는 연구나 서양과 동양의 무용사적 연구의 측면에서 루이 14세가 많이 언급되긴 하였으나 그 시대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아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무용사에서 루이 14세가 지니는 상징성과 그로

인한 발레의 놀라운 발전에 영향을 미친 왕권 강화를 위한 무용, 그리고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한 발레라는 측면을 다시 한 번 재고해보고자 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의 이분화 된 전개로 인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함을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고자 하는 논리가 아니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해 온 춤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남성 중심의 권력유지와 정치적 수단이 있었음을 고찰해보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루이 14세와 관련된 국내외 저서와 연구논문, 영화 등이 자료로 사용되었다. 또한 무용학 연구에서 발레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루이 14세가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념, 정치적 배경 속에 함축되어진 의미에 대해 다룬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답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루이 14세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고 그가 발레를 정치권력에 이용하게 된 이유와 그로 인한 권력의 유지라는 큰 틀에 대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둘째, 발레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 교육기관의 설립과 전문적인 테크닉의 발전에 대하여 다룬다. 셋째, 궁정발레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인 공연예술로 발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루이 14세가 무용사에 기여한 업적에 대하여 재고하고자 하였다.

II. 춤추는 권력: 남성무용수로서의 왕

프랑스 역사학은 1980년대부터 정치사의 부활이 봄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루이 14세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역사에서 루이 14세는 근대국가 형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존재로 자리하였다. 지난 날 프랑스의 영광은 루이 14세와 동일시되고 역사가들은 수세기 동안 태양왕과 위대한 세기의 신화를 만들고 가다듬어 왔다.³⁾

이는 서양무용 특히 발레의 역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발레의 부흥과 기

반 구축에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는 루이 14세는 직접 무용수로서 춤을 추면서 막강한 권력유지와 강화를 이룩하게 된다.

1661년 20여 년 간 부르봉 왕조의 절대주의를 완성하는데 공헌한 쥘 마자랭(Jules Mazarin)사후, 부르봉 왕조의 3대 국왕 루이 14세는 다섯 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국왕의 자리에 올라 프랑스를 군림하기 시작한다. 전쟁의 후유증과 대 귀족들이 합세한 ‘프롱드의 난⁴⁾’속에서 성장한 그는 보다 강력한 왕권의 확립을 원했고, 절대왕정의 군주로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발레라는 연희물을 선택하게 된다.

전제주의 시대에는 춤과 전투 모두 매뉴얼로서 편찬되었고 두 가지 다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학적인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루이 14세가 1661년 세운 왕립무용아카데미 설립헌장에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다.⁵⁾

“춤이 항상 가장 고상하며, 유용한 신체연마 수단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므로, 춤은 가장 근본적이고 자연스럽게 몸의 움직임을 단련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것은 특히 무기의 사용방법을 익히는데 효과적이는데, 따라서 우리의 귀족들과 상위층들은 전시에 우리의 군대를 가까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시에 우리의 발레단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익이며 유용하다.”

루이 14세는 왕으로서 자신의 취약한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고 넓히기 위해 발레를 비롯한 공연 형태의 예술을 택하였다. 국력이 약하고 내란으로 인해 심한 정치적 혼란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젊은 왕을 보다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화적 존재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했던 것이다. 루이 14세는 주피터 및 아폴론을

3) 이영림(2005), 태양-왕에서 인간-왕으로: 정치사의 부활과 루이 14세 연구, 『서양사론』 84, pp.305-306.

4) 당시의 왕 루이 14세는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모후 안 도트리슈가 섭정으로서, 마자랭을 재상으로 기용하였다. 그들은 1648년 8월에 파리 고등법원의 강경파 평정관을 체포하였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파리 시민들이 봉기하여 왕권에 저항하였다. 섭정 모후(母后) 안 도트리슈와 재상 마자랭을 중심으로 한 궁정파에 대하여 일어난 난으로, 최후의 귀족의 저항이라고도 하고, 최초의 시민혁명의 시도라고도 한다.

5) Mareen van Marwyck(2006), *Gewalt und Anmut: Weiblicher Heroismus in der Literatur und Ästhetik um 1800*(Bielefeld: Transcript), p.114.

위시한 그리스-로마 신화의 신들을 자신에게 비유하였고, 이를 투영하기 위하여 자극적 요소와 장치, 의상 등이 어우러진 발레를 선택하였다. 신화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본보기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신화나 고대 영웅으로 포장된 궁정발레의 주제는 왕을 지상의 신으로서 표현하면서 신하들을 이끄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였다.

이와 함께 잦은 전쟁과 크고 작은 내란으로 어려워진 나라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예술을 선보임과 동시에 귀족들에게 여흥을 즐기게 하였다. 실제로 화려한 여흥을 제공하는 궁정발레에 당원과 귀족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선동적 행위 방지와 정치세력 회유를 도모했으며, 그 결과 당원과 귀족들은 루이 14세가 주도한 궁정문화에 점점 흡수되어 갔다. 크고 작은 정치적 분쟁이 빈번했던 당시, 발레는 권력자의 위신을 세우면서도 시기적절하게 기분전환을 제공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최상의 여흥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궁정발레는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사회와 정세를 정화하여 사람들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완화시키거나 잠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궁정발레는 16세기 후반 앙리 3세의 궁정에서 『왕비의 극적 발레 *Balet Comique de la Royne*』(1581)가 공연된 이후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야기와 음악이 결합된 극적 춤의 형태로 주로 궁정 내의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무용수들은 극에 어울리는 의상을 입고 무대 장치 또한 화려했으며, 발레의 내용은 주로 프랑스 왕의 절대 권력을 옹호하는 정치적 함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왕비의 극적 발레』는 프랑스의 황금시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사악한 마녀가 방해하고, 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프랑스 왕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도움으로 마녀를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극의 마지막에는 최고의 신으로 지칭 받는 주피터가 프랑스 왕을 ‘프랑스의 주피터’라고 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⁶⁾ 즉 궁정발레의 주요 목적은 국가의 영광을 기리는 것인데 국가라

6) 정경영(2007), 춤과 음악의 간극: 루이 14세 시기의 미뉴엣을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10(3), p.101.

함은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 즉 왕을 의미한 것이었다.

1651년 루이 14세는 13세의 나이로 『바카스의 축제 *Fetes de Bacchus*』(1651)에 출연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톱니모양의 날개와 흉악한 외형을 지닌 악마분장을 하고 마법사 역으로 춤을 추었는데, 이는 프롱드의 난이 한창일 때 신하들에게 절대군주로서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⁷⁾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체제를 수립하고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군사력 독점과 재정력 확보 그 이상으로 왕의 독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들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공연을 통해 직접적이면서도 상징적인 표출로 각인되었다. 루이 14세는 1653년 15살의 나이로 『밤의 발레 *Ballet Royale de la Nuit*』에 ‘태양신’으로 직접 출연했고, 이 일을 계기로 ‘태양왕(*Le Roi Soleil*)’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작품 『밤의 발레』는 프롱드의 난과 정적들의 종말을 알리는 의도로 만들어진 발레였기에 1653년 10월 21일 파리로 재입성한 15살의 루이 14세는 자신의 건재를 알려야만 했고 이를 위해 발레를 활용한 것이다.

이 작품은 춤의 정확한 주제보다는 정치적인 암시가 훨씬 더 분명하였다. 이 작품에서 루이 14세는 머리에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관을 착용하였고, 상의와 슈즈 및 종아리의 양 옆 부분에 태양광선을 상징하는 문양의 장식을 달았다. 하의에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황금색 슈즈를 착용하였다. 전체적으로 황금색 의상과 태양을 상징하는 금속 소재의 장신구를 부착하여 화려함을 표현하였다. 루이 14세는 이 작품을 무려 일곱 차례나 공연하였다. 2001년 개봉된 영화 『왕의 춤』⁸⁾에 나타난 킬리와 루이 14세의 대화에서도 황금빛 슈즈나 의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7) 심정민(2004),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발레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사학』 2, pp.13-14.

8) 영화 『왕의 춤 *The King Is Dancing; Le Roi Danse*』은 제라르 코르비오(*Gerard Corbiau*)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2000년 개봉되었다. 이 영화는 프롱드의 난이 진압된 1653년부터 킬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1687년까지의 시기를 다루며 루이 14세 시대의 춤 문화를 재현하고 있으며 바로크 시대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낸 영화이다.

(1653년 2월 23일, 왕실 공연장 무대 뒤)

뤼리: 폐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루이 14세: 곧 내 차례야. 시간이 없다.

뤼리: 잠깐이면 됩니다.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태양 문양이 장식된 금빛 슈즈를 내민다) 폐하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신어야죠. 프랑스를 다스릴 국왕이시니까요. 제 작은 정성입니다. 이걸 신고 무대를 빛내 폐하의 영예에 빛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루이 14세가 태양의 역할로 무대의 중앙에서 춤을 추는 동안 다른 귀족들은 그 주변을 돌며 춤을 추는데 이는 왕실은 왕국이 돌아가는 축이자 그 생명이 달려있는 태양이라는 그의 주장을 대변하였다. 그렇기에 루이 14세가 진정으로 프랑스의 왕권을 잡았을 때 백성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국가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프랑스나 루이의 적에게는 치명적인 광선을 내뿜을 수 있는 태양왕이라는 지울 수 없는 이미지를 새기는데 노력하였다.⁹⁾

이러한 태양의 이미지는 곧 루이 14세의 상징이 되었으며, 왕의 권력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루이 14세는 태양의 절대적이고 온화한 이미지를 통해 스스로가 최고로 빛나고 높은 자임을 인식시키며 절대적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춤의 대형에서도 무대의 중앙에 자신이 있고 귀족들은 주변에 돌게 하여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낮춰지며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하는 것이다. 작품의 내용에서 왕실의 중심은 태양이며, 태양은 곧 자신임을 우회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왕권 강화에 대한 집념은 영화 『왕의 춤』에서 뮈리가 연주를 하고, 루이 14세가 춤을 연습하는 장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루이 14세는 원의 중심에 서고, 남성무용수들이 왕을 둘러싸고 춤을 추고 있다.)

루이 14세 : 그만! 태양은 혼자 빛나는 법이야. (춤추던 남성무용수들이 물러난다) 옆에서 그 광채를 흐려선 안 돼. 거리를 뒤. 방해만 된다고. 극의 흐름을 따라 움직여야지.

9) 이상경(2009), 루이 14세의 정치적 함의에 발현된 궁정발레의 표현양식,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8-49.

이 영화에서는 루이 14세가 힘든 발레 동작을 연습하여 『밤의 발레』작품을 왕족과 귀족들 앞에서 공연한다. 왕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황금마스크를 들고 궁전의 뜰에 마련한 무대에 입장하면, 희극작가인 몰리에르가 왕의 찬가를 낭독한다.

“나는 빛의 근원이며 가장 빛나는 별이라, 날 에워싼 모든 별이 날 찬미하며 그 별들도 내 허락한 만큼만 빛을 발하리. 두 눈을 크게 뜨고 이곳에서 반짝이는 지존을 맞으라, 영광의 빛이여 금지의 빛이여, 그 어느 신성이 내게 견줄 수 있으리!”

왕의 힘을 과시하고자 한 화려하고 장식적인 의상과 무대와는 반대로 이 시대 궁정발레는 강건하고 위용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동작은 절도 있고 이성적이며 간결하였다. 우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지된 동작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뒤꿈치만 든 데미 포인트(demi-point) 자세를 이용한 동작들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어려운 기교를 요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러한 강하고 절도 있는 분위기는 단순히 아름답고 우아한 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왕의 권력을 대변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품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궁정발레에서 왕이 친히 출연하는 발레작품에 주요한 역을 맡는다는 것은 그 귀족의 사회적 입지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을 수행하는 귀족들 역시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사교를 위해서 무용훈련에 몰입해야 했다. 이로 인하여 귀족들 사이에서 무용이 필수적으로 인식되면서 이 시기에 많은 무용교사들이 등장하게 되었다.¹⁰⁾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귀족들은 왕의 눈에 들기 위해 더욱 훌륭한 행동과 화술, 예술적 기질을 다듬으며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



〈그림 1〉 『밤의 발레』 속 루이 14세(1653)



〈그림 2〉 영화『왕의 춤』의 루이14세(2001)

10) 심정민(2004), pp.13-25.

다. 예를 들면 루이 14세는 전쟁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거나 자신의 눈에든 귀족에게 그 대가로 엄청난 액수의 연금을 지급하고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

그 시대 프랑스 내에 지방귀족들을 궁정에 예속시킴으로써 세력 약화를 피하는 루이의 의도는 너무도 잘 이행되고 있었으며 왕의 정적들과 신하들은 모두 궁정 문화에 흡수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게 된다.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춤을 추기에 알맞은 곡들로 만들어진 것만 보아도 이 시대의 예술은 ‘춤’에 집중되어 있었고, 루이 14세는 직접 발레에 출연함으로써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정치적 압박을 귀족들에게 세뇌시킨 것이다.

무용의 역사에서 한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용예술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용한 적은 없었다. 궁정발레는 지배계급 특히 왕실의 당위성과 부와 권위를 과시하려는 일련의 목적을 가장 가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최상의 예술형태였다.¹¹⁾ 왕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을 넘어 절대왕정을 수립한 루이 14세는 발레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그 시대 발레는 권력을 대변하는 정치적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결국 루이 14세의 권력은 발레를 통해 강화되고, 발레는 왕의 권력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특이한 상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발레를 애호했던 만큼 직접 춤추기를 즐겼던 무용수로서의 루이 14세는 여러 공연을 통해 국가의 영광을 기리는 것, 즉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을 기리는 것에 대해 우회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비록 발레가 권력을 위해 이용되기는 했지만, 절대왕정을 이룩한 후에도 발레 사랑이 계속된 것을 보면 아마도 루이 14세는 진정한 발레의 애호가였을 지도 모른다. 이렇듯 발레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에 발레는 예술의 한 장르로 발전하고, 프랑스의 문화적 자산으로써 남을 수 있었다. 현재까지도 모든 발레 용어는 프랑스어로 통용되는 것만 봐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루이 14세는 예술과 정치가 결합하는 방식을 프랑스의 전제왕조에서 보여주었

11) 앞의 책, p.13.

다.¹²⁾ 프랑스 궁정에서 춤은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발레는 모든 귀족들에 대한 양육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루이 14세는 춤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궁 안에서 명성을 얻고 지배력을 발휘한 것이다. 베르사유를 지배한 위계질서가 발레에도 고스란히 전이된 것이다. 자신의 화려한 춤 동작을 통해 그는 자신의 왕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고, 절대군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었으며 귀족들은 직접 무용수로서 참여했다. 그들은 왕에 의해 엄격하게 서열화 된 계급체제에서 왕이 정해주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어야 했으며, 춤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무대에서도 정해진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다. 루이 14세는 궁정에서 이렇게 춤을 통해 왕으로서의 권력을 나타냈고, 춤을 활용한 상징적인 방법으로 정치적 현실을 묘사한 것이다.

III. 전문적인 몸: 발레테크닉의 발전

발레의 역사를 기록한 문헌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루이 14세 시대의 의상은 과도하게 부풀린 풍성한 소매, 보석과 실크 소재의 자수가 놓아진 베스트 등 고급스러움과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의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의상, 기구, 분장 소도구 등을 통해 신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는데 조끼, 가슴 받이, 톱니 모양의 짧은 치마, 왕관,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 등과 같은 남성용 복장은 고대 그리스·로마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쥬피터 신은 번개를 가졌으며 독수리를 타고 다니며, 하계의 신 플루토는 불에서 솟아나와 때로는 왕관을 불에 태우기도 한다. 태양신 아폴로는 월계수나 혹은 번쩍이는 빛의 왕관을 쓰고, 초승달 모양의 왕관을 쓴 다이아나는 활을 든다. 이와 같은 상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것이어서 각 분장이 어떤 역인가를 즉시 알아보게 했다.¹³⁾

12) G. Britta(2006), *Ludwig XIV. – tanzender König und absolutistischer Herrscher Schriften zur Kulturwissenschaft, Band 63*(Hamburg: Verlag Dr. Kovac), p.132.

13) 이상경(2009), pp.27-28.

춤 동작도 절대왕정 선언 이후 절도 있고 강렬한 제스처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귀족들에게도 해당된다. 발 디딤새는 바닥과 매우 가깝게 밀착되어 있으며 민첩한 동작 보다는 우아함을 강조하였다. 이 시대 궁정발레의 공연 시간이 너댓시간 이어지거나 심지어 『밤의 발레』는 13시간동안 진행된 것만 보더라도 이 시대의 춤은 왕과 귀족들의 권력 유지와 향유를 위한 사교의 장으로서 역할이 컸다. 아마 추어 춤꾼으로서 발레를 즐기던 귀족들은 고귀함과 우아함의 징표로서 춤추는 동안 낮게 위치한 팔과 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머리가 숙여지지 않도록 움직였다. 후에 전문무용수가 득세하면서부터 팔의 위치는 점점 높이 상승하게 되며 서있는 동작과 여유 있게 걷는 동작의 세련된 모습은 극대화되어 고전발레의 근본적인 자세로서 고정되었다.

작품 내에서 중요역할이 주로 왕과 귀족에게 할애되어 있던 관계로, 귀족이 아닌 무용수들의 제스처와 무용 스텝은 해학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비교적 제한적이었으며 개성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더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반면에 의상은 아름답고 사치스러웠으며, 무대 위에 그려지는 발의 패턴이나 형태만큼이나 중요시된 부분이기도 하였다.

프롱드의 난으로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세력들과 힘겨움을 해야 했던 루이 14세는 자신의 정치적 의도를 만족시켜 줄 예술가들을 필요로 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희극작가인 몰리에르(Jean Baptiste Poquelin Moliere)는 17세기 프랑스 문학 확립에 큰 공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뤼리(Jean Baptiste Lully)와의 유대로 코미디 발레라는 새로운 개념의 발레를 탄생시켰다.¹⁴⁾ 루이 14세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이 둘은, 몰리에르의 희극 작품에 뤼리의 음악과 안무를 삽입하도록 하면서 연극과 음악, 발레가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고 이는 향후 극장 무용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왕의 무용교습자인 보샹(Pierre Beauchamp), 음악가이며 무용수인 뤼리, 위대한 극작가 몰리에르와 코르네이(Corneille) 등으로 인해 무대 공연

14) 박경숙(2006), 루이 14세 시대의 몰리에르 코미디 발레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48, p.80.

의 우수성은 궁정발레를 점점 더 능가하게 되었다. 극장무대에서 더 크고 더 자유로운 동작이 가능해짐에 따라 발레는 무도회장의 제한된 동작을 대체하게 되었다.

루이 14세 시대에 발레 테크닉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인 보상은 발의 90도 외전을 토대로 한 ‘발의 5가지 포지션(cinq positions des pieds)’과 ‘팔의 12가지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하였다. 특히 다섯 가지 포지션에서의 발의 위치는 프랑스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받는 무용수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이었으며, 모든 공연의 본질적인 기초가 되었다. 이 포지션은 해부학적인 의미에서도 절대적인 것이었다. 다섯 가지 발레 포지션은 어린 학생들이 배우기 쉽고 무용수들이 무대에서 공연하기 쉽고 안전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초로 다양한 형태의 동작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발레의 기본이 된 다섯 가지 포지션은 발레가 다른 모든 무대 공연되는 무용과 구별되도록 만들어졌다. 보상은 발과 팔의 기본 포지션을 근거로 다양한 스텝들, 턴, 피루엣 등의 동작을 개발하였고 몇 세기를 거쳐 발전해가는 발레테크닉의 기본이 되었다. 발레는 이제 가르쳐지고, 배우고, 완전히 숙달될 수 있는 전문 분야가 되었다.

한편으로 당시 무도장(ballroom)의 스텝은 다리의 섬세한 동작이나 팔과 머리의 조화로운 동작으로 상당히 세련화 되었으며 이것이 발레에도 영향을 미쳐 정교한 발레동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¹⁵⁾ 동시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 지역의 민속무용 역시 낭만발레, 고전발레 시대까지 발레동작과 대열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670년에 왕이 공연일선에서 은퇴하자, 그를 따르는 귀족들도 발레 출연에 대한 매력을 점점 잃어갔다. 이제 궁정발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오던 아마추어 귀족 집단은 전문 무용수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개념의 프로시니엄 극장이 활성화되자 발레는 갈수록 전문화 되어 갔다. 발레의 기법은 발을 바닥에서 떼지 않고 추는 느린 춤인 바쓰당스에서 앙뜨르샤(entrechat)와 같은 도약 동작들을 가진 오트당스(haute danse)로 변화하는 등

15) 심정민(2004), p.21.

동작의 형태가 수평에서 수직적으로 변화되어 갔다.

특히 궁정무용 초기 3면을 에워싼 형태에서 현대적인 무대의 형태인 프로시니엄으로 전환되고, 프랑스에서 발레가 서서히 귀족 아마추어들의 기분전환용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직업 예술로 변모되면서 발레 테크닉도 점점 세련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 당시 도입된 프로시니엄 아치는 무대와 관객석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무용수로 하여금 춤을 한 방향으로 보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게 하였다. 발레는 관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정면을 향한 춤을 출까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생겼다. 무대를 가로질러 좌우로 움직일 때에 관중을 마주하고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엉덩이와 무릎을 밖으로 돌리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발은 앞으로 쪽 펴는 대신에 옆으로 향하게 하였다. 지금의 턴 아웃(turn-out)이라는 동작이 만들어진 이유이다.

전문무용수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발동작을 완벽히 수행하고 통일되고 발전된 테크닉으로 무장하기 시작하였다. 기록에서 언급하는 바,¹⁶⁾ 도약적인 움직임이 많으며 빠르며 복잡하고 움직임이 큰 동작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들은 아마도 루이 14세 시대부터 가속화된 무용테크닉의 발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양상과 관객의 요구는 이후 두 개의 왕립 아카데미를 설립하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군사력을 장악한 시기와 맞물려 발레를 그만 둔 루이 14세는 무용에서의 전문성과 직업의식이 고조되는 경향을 파악하고 발레가 이전보다 좀 더 독자적인 예술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파리에 두 개의 왕립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발레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1661년에 왕립무용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Danse)와 1672년에 왕립음악아카데미(Académie Royale de Musique)를 설립하여 발레를 전문적인 예술 형태로 양성하고 정착시킴으로써 무용사에 길이 남을 성과를 이루었다. 발레 외에도 회화, 조각 건축 등을 포함해 총 7개의 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

16) J.G. Cowart(2008), *The Triumph of Pleasure Louis XIV & the Politics of Spectacle*(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32-140).

왕립음악아카데미는 다른 아카데미들과는 달리 실제적인 왕립 가무단이었다. 왕립음악아카데미는 그 당시 다른 아카데미들과 같이 '이론적 체제의 완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전에 아마추어적인 유희이었던 발레를 극장무대에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문무용수의 양성, 전문 무용작품의 제작, 여러 실제적 원리들의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국왕인 루이 14세는 자신과 귀족들의 안위와 여흥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아카데미를 적극 후원하였고, 이러한 국가적인 뒷받침으로 인하여 발레는 17세기에 전문적인 예술형태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발레의 전문화를 위한 이유가 크겠지만 한편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발레가 경험 없는 무용수들에 의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왕립무용아카데미를 설립하였다는 기록도 있다.¹⁷⁾ 아카데미 설립의 목표는 분명하다. 왕립무용아카데미의 목표는 발레예술의 완성을 위해서 무용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과학적 원리'를 확립하여 무용의 실재적인 기준을 고정하는 것이었다. 이 아카데미의 업무소관은 국왕이 주재하는 발레에서 공연할 무용수들을 훈련하는 일, 포부가 큰 무용 감독을 양성하는 일, 현존하는 기술을 다듬는 일, 파리의 모든 무용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 새로운 무용을 판정하는 일 등이었다. 무엇보다도 왕립무용아카데미는 국왕이 최초로 설립하였고 높은 수준의 무용교육을 뒷받침하여 독자적인 대중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반을 닦게 하고 무용의 주권을 확립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카데미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은 발레의 놀라운 발전과 전문화, 소재 및 연출의 다양화를 가져왔으며, 궁정발레의 엄격한 틀에서 점차 벗어나 '발레 창작가'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의 창조적 천재성에 자리를 내어주는 자율적 예술이 된다.

아카데미의 설립과 함께 뿔리는 직업무용수들로 구성된 직업무용단을 조직하였고, 1681년에 보상의 지도하에 최초의 여성 직업무용수가 등장하여 이후 전개될 발레리나의 전성기를 예보하게 된다.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발레 테크닉은 춤, 스텝, 기교가 훨씬 더 발전하고 체계

17) 이상경(2009), p.28.

화되는 다음 시대에 대한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 루이 14세 시대의 예술은 콜베르의 정책과 프랑스의 활발한 전쟁 등으로 찬란하고 화려했으며 예술을 유달리 좋아한 루이 14세 치하에서 궁정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왕이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서민들 사이에서도 예술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루이 14세의 사치는 예술의 화려함 속에서 고스란히 나타나며 문화적으로는 부흥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휘청거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IV. 정치 전략으로서 발레의 부흥과 쇠퇴

절대왕정의 정점이었던 17세기는 절대왕권을 중심으로 근대국가의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하고 초기 자본주의 성장으로 근대문화에 대한 토대가 확고해진 시기이다. 왕권을 중심으로 체제를 이룩한 유럽의 국가들은 왕위를 둘러싼 정치적 내란이나 종교개혁, 신대륙의 발견 등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국가의 존립과 팽창이 필요한 이 시기에는 절대왕정의 골격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예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17세기 프랑스 예술은 왕권의 상승과 함께 왕실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인한 고급예술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모든 예술분야가 시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권계층의 향유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된 것이다.

루이 14세는 새로운 이상 국가의 건설에 불타오른 지도자도, 백성의 고통을 헤아리는 군주도 아니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왕권유지와 절대군주의 영광을 과시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의 한계와 귀족의 위험성에 대비하고자 파리의 광장 무대와 베르사유에서 발레를 활용하는 등 정치선전문화를 펼친 그에게 발레는 정치적 전략임과 동시에 정치권력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발레는 왕과 궁정을 위하여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 귀족이 동원되었고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태양왕으로 지칭되고 ‘짐이 곧 국가이다’라는 말을 남겼듯이 그는 역사에서 절대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절대군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의 실제 모습도 이렇을까? 절대왕정의 강력한 군주이며 발레를 권력의 유지 장치로 이용했던 그의 모습은 작품 『밤의 발레』의 태양왕으로서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2002년 출간된 『사생활의 역사』¹⁸⁾에서 루이 14세의 건강일지에 나타난 바, 왕의 육체적 실체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온갖 병에 시달린 허약하고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묘사하고 있다.

루이 14세가 그토록 강력한 절대왕정 유지를 위해 발레라는 예술을 활용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무용에 있어서 욕망을 실현할 거점이 바로 ‘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역사를 막론해서 인간의 영원한 화두인 몸을 통한 발레예술은 루이 14세에게도 욕망의 원동력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고도로 세분화 된 몸 관리 규범 즉 귀족과 피지배계급의 복식, 동작, 걸음걸이 등의 차이를 보더라도 확연히 나타난다.

루이 14세는 연습을 통해 새로운 동작을 개발하여 수많은 귀족들이 모인 연회에서 자신의 장기를 보여주는 것이 생활의 큰 낙이었을 것이다. 물론 당시의 발레는 지금 우리가 무대에서 보는 그러한 화려한 테크닉은 아니었지만, 당시에는 귀족들 사회에서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큼 루이 14세도 나름 춤에 재능이 있었다고 한다. 루이 14세의 발레 사랑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당시 권력의 중심인 어머니와 그의 반대파 세력에게 그가 권력에는 관심이 없음을 각인시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전략이었을 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역사 속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발레가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루이 14세가 더 이상 발레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자 그를 수행하던 귀족 역시 공연 일선에서 물러나서 춤꾼이 아닌 관객으로서 발레를 즐기기 시작한다. 무용수로서 루이 14세의 퇴장은 아마추어 춤꾼의 시대가 저물고 전문 무용수

18) G. 더비, and A. 필립(1986), 『사생활의 역사 3』, 이영림(역)(서울: 새물결, 2002), pp.467-470.

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가 된 것이다. 궁정발레의 역사에서는 루이 14세의 은퇴는 궁정발레의 쇠퇴를 가져온 것이지만, 반면 무용사적 입장에서는 전문성과 테크닉을 겸비한 공연예술로서 발레를 성장시킨 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역사에서 언급하듯 비만증 때문이었는지, 본인이 원했던 강력한 왕권을 이루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관객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그가 무용수로서 은퇴를 한 사건은 춤이 귀족의 예술에서 예술가의 예술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1세기 현재 예술가의 예술에서 공공 예술로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로 점점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시대적 상황과 사회변화에 따라 예술도 진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무용사에서 춤이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발레처럼 국가적 후원과 권력자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은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적인 궁정발레의 육성은 결과적으로 다음 세기에 펼쳐지는 무용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V. 결론

1581년 작품 『왕비의 코믹발레』를 시작으로 1681년 『사랑의 승리』를 끝으로 막을 내린 프랑스 궁정발레는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부흥했으며 쇠퇴하게 된다.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의 절대 군주 루이 14세는 예술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활용한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왕권신수설을 위한 궁정발레는 왕을 신격화했으며, 귀족들과 시민들로 하여금 전쟁 후 혼란스러운 시대의 고통과 사회계급의 불합리성을 의도적으로 잊게 만들어준 여흥이자 하나의 축제였다.

무려 72년간 통치한 유럽 최장기 집권 국왕인 루이 14세는 권력 집중을 위해 외교 전쟁을 교차해가면서 유럽 내의 국제관계를 주도하려 했지만, 정작 그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게 발휘된 것은 예술영역이었다. 그는 궁정문화를 통해 귀족이나 성직자 등의 상층집단을 제압하고 시민을 승복시켰으며, 유럽 내에서 프랑스 문화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프롱드의 난으로 루

이 14세가 받은 충격은 그의 일생을 통해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책으로 왕권 절대화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는 귀족이나 성직자 등 지배계급이 모인 연회에서 춤을 추며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왕이 춘 춤은 상당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권력의 은유적 과시를 위해 과도한 황금빛의 의상을 입거나 작품의 소재 그리고 출연하는 귀족과 무용수들의 대형 또한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발레를 통해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베르사유를 통해 조성된 궁정문화와 예술은 다양한 정치권력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에게 반항적이었던 귀족들을 미혹시키는데 활용되었고, 궁정발레나 연극 등에서 서열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거나 구성원들에 대한 군주의 통제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후에 궁정발레는 유럽 내의 국가를 비롯하여 러시아와 신대륙인 미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몇 세기가 흐른 현 시점에서도 루이 14세가 무용사에서 주목받는 것은 발레를 통한 권력의 표방만이 아니라 발레를 사랑하고 춤추는 것을 기꺼이 즐긴 ‘춤추는 왕’으로서 그를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루이 14세는 권위의 상징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궁정발레를 통해 인간 이상의 존재로서 자신을 부각시켰고 당시의 철저한 계급사회를 반영하듯 궁정발레 역시 특수 지배계층이 향유하는 사교로서 역할을 하였다. 특별히 개인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되지 않았던 궁정 문화의 특성상 궁정발레는 지배계층의 정치적 위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피지배계층과 친분을 쌓고 교류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¹⁹⁾

절대왕정은 왕권의 권력이 하늘에 도달하여서 귀족들은 왕에게 잘 보여야만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을 확산시켰고 귀족들은 루이 14세가 세운 베르사유 궁전을 중심으로 삶이 진행되고 있었다. 스스로를 젊은 아폴로라고 불렀고 태양왕으로 지칭되며 자신이 거처하는 궁의 구석구석을 그리스 신들로 도배하듯 장식한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는 치밀하게 계산된 베르사유에서 ‘궁정발레’라는 예술을 통해 귀족을 통제했고 끊임없이 그가 유일한 주권자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19) 심정민(2004), p.18.

인간의 몸을 이용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술일 수 있는 발레가 절대적 군주인 왕의 정치적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춤추는 권력자였던 루이 14세는 무용수로서 은퇴 후 현재 파리오페라발레단의 전신인 왕립무용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전문 무용수를 양성하는 등 결과적으로 무용사에 길이 남을만한 업적을 이룩한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체계적인 발레 테크닉을 완성하고 춤을 비롯한 노래, 음악, 무대장식과 장치, 의상 등이 어우러진 혼합적인 예술형태를 만들어내는 등 무용의 전문화와 직업화를 이룩한 그는 향후 극장무용과 공연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 참고문헌

- 더비, G. and 필립, A.(1986). 『사생활의 역사 3』. 이영림(역). 서울: 새물결.
- 오, S.(2002). 『발레와 현대무용』. 김채현(역). 서울: 시공사.
- Britta Garstka(2006). *Ludwig XIV.-tanzender König und absolutistischer Herrscher*
Schriften zur Kulturwissenschaft, Band 63. Hamburg: Verlag Dr. Kovac.
- Mareen van Marwyck(2006). *Gewalt und Anmut: Weiblicher Heroismus in der Literatur*
und Ästhetik um 1800. Bielefeld: Transcript.
- Cowart, Georgia J.(2008). *The Triumph of Pleasure Louis XIV & the Politics of Spectacl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박경숙(2006). 루이 14세 시대의 몰리에르 코미디 발레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
문집』, 48: 79-97.
- 배수을(2010). 영화 ‘왕의 춤’에 나타난 루이 14세 시대의 무용사적 정황과 정치적
함의. 『공연문화연구』, 21: 275-289.
- 심정민(2004). 루이 14세 시대의 궁정발레의 본질적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
사학』, 2: 5-30.
- 이상경(2009). 루이 14세의 정치적 함의에 발현된 궁정발레의 표현양식. 영남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림(2005). 태양-왕에서 인간-왕으로: 정치사의 부활과 루이 14세 연구. 『서

양사론』, 84: 305-330.

정경영(2007). 춤과 음악의 간극: 루이 14세 시기의 미뉴엣을 중심으로. 『서양음악학』, 10(3): 99-120.

논문투고일	2013년	12월	15일
심사일		12월	21일
심사완료일	2014년	1월	7일

Abstract

Political Power in Ballet, Considered by Dancing King, Louis XIV

Park, Hyun Jung* · Kim, Ji Young**

*Senior Researcher of Korean 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rts**

*Professor of Department of Culture and Art Management, Sangmyung University***

This research intends to investigate start, revival and decline of court ballet, that French Louis XIV called as an autocrat achieved, and examine political implications reflected in them. It intends to examine why Louis XIV selected ballet so as to strengthen and maintain royal authority and what periodical situation and political background for obtaining the title of ballet revival's founder, evaluated in this era, were. At present, Louis XIV is focused in dance history because he can be focused as a 'dancing body' loving ballet and enjoying dance, not just imitation of authority by ballet. Dancing autocrat established royal dance academy as a dancer after his retirement, educated and released professional dancers and gav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ater dance and performance art through the professionalism and professionalization of dance in the future. Talented artists released by court ballet and ballet's basic techniques developed by them are very significant to prepare foundation of the next period when dance was more developed and systematized. In dance history, there was no time when dance received national supports and autocrat's interests intensively like the court ballet of Louis XIV period. And, the cultivation of political court ballet finally brought brilliant enlightenment of dance art in the next period.

keywords: Louis XIV(루이 14세), court ballet(궁정발레), political power(정치권력), absolute monarchy(절대군주), dancing body(춤추는 몸)